

Ryan Park

Minister for Health
Minister for Regional Health
Minister for the Illawarra and the South Coast

**Steve Kamper**

Minister for Small Business
Minister for Lands and Property
Minister for Multiculturalism
Minister for Sport

보도자료**2024년 다문화 건강 주간 다문화 가족 도시락을 이용하여
음식으로 문화를 자축하세요****2024년 9월 2일 월요일**

2024년 다문화 건강 주간의 초점은 건강한 식생활의 중요성을 문화적·언어적으로 다양한 공동체에 알리는 것이며, 이번 주간은 직장, 학교, 또는 외출 시 건강한 도시락을 함께 준비할 것을 권장합니다.

라이언 파크 NSW 보건부 장관은 올해의 주제가 ‘다문화 가족 도시락을 통한 음식으로 문화 자축하기’라고 발표하며, 맛있고 건강한 도시락을 준비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평생 긍정적인 습관을 가르치는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호주의 인기 셰프이자 다문화 건강 대사인 아담 료가 올해 다문화 건강 주간에 참여하여 가족 도시락 조리법을 만들고,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팁을 제공함으로써 성인과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성인의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 그리고 암과 만성 질환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매일 채소 5회 섭취를 권장합니다.

그러나 성인 100명 중 4명, 어린이 100명 중 6명만이 충분한 채소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어린이들은 하루 음식 섭취량의 약 3분의 1을 학교에서 섭취하므로 도시락에 더 많은 채소를 추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2024년 다문화 건강 주간 자료와 프로그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케리와 마리안과 함께 펼치는 아담의 점심 도시락 도전.
- 아담 료의 다문화 가족 도시락 조리법
- 다문화 가족 도시락을 통한 건강한 식생활을 영어로 홍보하는 아담 료의 2분 동영상 (아랍어,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체, 베트남어 자막 제공).
-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15초 분량의 동영상 네 편

- 영어 및 39 개 언어로 된 다문화 주간 포스터, 안내지, 소셜 미디어 자료
- 다문화 가족 도시락 도전

다문화 건강 주간 홈페이지와 소셜 미디어를 방문하여 추가 정보와 자료를 얻으세요.

건강한 식생활, 활기찬 생활에서는 건강한 미래를 위해 지금 바로 가족과 함께 간단한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실용적인 팁, 도구 및 무료 NSW 정부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습니다. NSW 보건부에는 주간 메뉴 계획표를 위시하여 온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저비용, 간단 조리법이 있습니다.

라이언 파크 보건부 장관 어록

“다문화 건강 주간은 문화적·언어적으로 다양한 공동체의 건강 결과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연례행사입니다.

“올해의 주제는 건강 식습관 홍보에 집중하되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 도시락이 대표하는 문화, 식단, 음식의 관련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담 리아우의 조리법은 야채와 과일이 포함된 맛있고 건강한 음식으로 구성된 다문화 도시락을 가족들이 싸도록 영감을 줄 것입니다.”

스티브 캠퍼 다문화부 장관 어록

“NSW 는 다양하고 응집력있는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이며, 우리의 다문화 공동체의 건강과 웰빙은 NSW 전체의 건강과 웰빙을 반영합니다.

“지난 2021 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810 만 명이 NSW 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중 220 만 명 이상이 가정에서 영어 외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어떤 주나 준주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다문화 건강 주간을 함께 축하하며, 다문화 공동체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고, 문화적 다양성을 기념하며, 건강한 식생활을 촉진하고, 이야기와 음식을 나누며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이 훌륭한 기회를 활용합시다.”

수전 피어스 NSW 보건부 차관 어록 :

“올해는 학교, 직장, 지역 사회에서 다문화 건강 주간에 모든 분이 참여하기를 권장합니다.

“이러한 유익한 자료는 모든 사람들, 특히 문화적·언어적으로 다양한 공동체가 건강하고 예산 친화적인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리사 우드랜드 NSW 다문화 보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국장 어록

“웨스턴 시드니 지역 보건구 예방 교육 및 연구부서와 협력하여 다문화 가족 도시락 도전을 시작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 대회는 다문화 배경 젊은이들이 자기 가족 도시락을 선보이며, 자신의 문화 음식을 활용한 건강한 식생활을 탐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담 료 셰프 어록

“올해 다문화 건강 주간에 참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 자신도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서, 다문화 공동체가 음식에 접근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 시 겪을 수 있는 나쁨의 도전과 장벽을 이해합니다.

“여러분의 배경이나 문화가 무엇이든, 집밥이 건강한 식생활에 쉽게 영감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언론 담당

스테파니 매켄 | 파크 장관 | 0437 833 159

[Contact Name] | 캠퍼 장관 | [Phone Number]